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경험 성찰*

장우선**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선진국들은 ‘창의성’을 화두로 삼고 창의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으며, ‘예술’을 국가의 핵심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미국, “문화예술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프랑스, 어린이 예술교육을 강조하며 “미래를 디자인 한다”는 핀란드, “상상력의 원천은 문화예술”이라는 영국 등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조 되고 있다.¹⁾ 예술교육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일환으로 지식교육의 한계를 넘어 삶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선사한다는 의미에서 공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선행되길 지향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 창의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지원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분류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일환으로 예술강사는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국악을 시작으로 2005년 무용, 연극, 영화 등이 추가되었다. 각 사·도별로 전문성을 갖춘 무용인을 강사진으로 확보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론 및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파견되는 예술 강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공교육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키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체자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²⁾

무용 교육자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학생에 대한 애정, 배려, 자신

* 충남대학교 무용학 박사수료, jws9719@hanmail.net

1)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2010), 『무용교육의 힘』(서울: 댄스뷰), p.92.

2) 홍한나(2012), 무용 예술강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2.

의 교육관을 실천하는 것,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신념, 태도로 구체화 될 수 있다.³⁾ 이와 같이 무용 예술강사의 주된 업무는 움직임교육 전달이지만 수업 외에 담당교사와 협의 수업운영에 있는 관계, 학생과의 소통 관계가 형성되어 신념 있는 무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양방향의 소통으로 교육에 있어서 “나”는 지식전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학생과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심성적 태도를 말한다. 신념과 태도는 교육자가 교육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정의적 특성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교수자에게 수업 반성은 좋은 무용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성찰의 기회로 양방향의 소통이 상호작용하여 문제의식을 개선시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강사 무용지도경험이 바탕이 되어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으로 학교교사와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협력수업에서 오는 담임교사의 부재와 무관심 등으로 인한 무용수업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및 학교 측의 요구, 또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예술강사라는 입장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결국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무용 예술강사가 학교수업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상황들에 대해 본 연구자의 지도경험을 토대로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무용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의 문제를 제기한다.

무용에서 자문화기술지적 연구는 무용교육에 있어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무용수업의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업구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⁵⁾고 제시하였다. 즉, 연구자 본인이 직접 체득한 수업에 대한실제적인 경험을 자술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면서 무용 수업을 통해 직면한 소통의 역할과 좋은 무용 수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점에서 진실하게 성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예술강사로 무용수업을 담당하여 수업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학교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술하여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를 토대로 무용 예술강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했을 때 좋은 대안으로 방향성의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나”의 경험과 체험에 기반 한 자문화기술지로 질적연구를 시도한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의 자선적 자료를 활용하는 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으로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자로서 “나”⁶⁾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용을 전공하여 중·고등학교를 무용 특기생으로

3) 홍예령(2012),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심성적 자질의 재조명과 함양 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 19(1), p.29.

4) 앞의 글, p.29.

5) 유미희(2016),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무용예술학연구』 60(3), p.110.

6) 여기에서 표현되는 “나”는 연구자를 뜻하며, “본 연구자” 또는 ‘나’라고 표기한다.

졸업 후 현대무용 전공으로 ○○대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였다. 무용의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배웠으며, 4년간 공연활동을 통해 전문 무용수로 성장하길 희망하였지만 무릎 부상으로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어 무용교육을 전공하여 교육학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용수업 경험 중 “나”의 움직임의 보고 열심히 따라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대 위에서 춤 출 때와는 다른 보람을 느꼈으며, 움직임에 순수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무용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무용을 통해 학생들과 움직임 소통을 할 수 있는 무용강사로 활동한 수업은 어린이발레, 뮤지컬 안무, 재즈댄스, 방송댄스, 현대무용, 실버댄스, 창작무용이 있다. 2011년부터 예술강사 무용 수업을 초등학교에서 지도하게 되는 계기로 방과 후 학교 “무용관련(방송댄스, 무용, 실용댄스)”수업을 겸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무용 예술강사 경력은 8년이며, 2013년 대전 소재 ○○대학교 무용학 박사과정 수료 중으로 6년차 대학교 시간강사이다. 시간이 지나보다니 “나”만의 노하우가 갖든 무용교수법과 소통하는 방식이 생겨났다. 또한 그동안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지도해온 무용 수업이 학교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시점으로 담당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소통하기 위한 과정을 반성하며, 자기성찰을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지도경험을 고찰해보는 기회로 삼는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예술강사로 무용수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삶을 심층적으로 기술한다.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깊이 성찰하고 사회 안에서 타인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자기(self)에 대한 사회, 문화, 정치적 이해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다.⁷⁾ 이동성에 의하면 “한 개인의 경험은 언제나 사회의 생활양식, 사건, 상황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통찰을 얻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⁸⁾고 정의한다.

연구자이면서 참여자인 “나”는 예술강사로서 그동안 배정받은 시수를 기재하여 경력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자문화기술지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예술강사 첫 배정은 2011년을 시작으로 154시수, 2012년 260시수, 2013년 200시수, 2014년 260시수, 2015년 328시수, 2016년 228시수, 2017년 312시수, 2018년 216시수로 8년 동안 무용 수업을 지도하면서 매 수업시간 때마다 올렸던 수업일지, 자기관찰지, 수업평가지, 학생들의 반응 기억, 개인적인 기억자료, 자기성찰 자료를 토대로 지도 경험을 회상하며, 자료를 반복적으로 정독하여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 경험과 학교수업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 현상들을 밝히기 위해 연구 자료들을 초기코딩(initial coding)하였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초기 코딩들을 범주화하여 2차적인 패턴코딩(pattern coding)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패턴코딩을 재범주화 하여 세 가지의 주요(主要)한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하여 체계를 만들었다.⁹⁾ 이 선택적 코딩을 통한 최종적인 범주들은 ‘학교교사’, ‘학생’, ‘예술강사의 역할’로 자료 분석하여 최종적인 글쓰기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Duncan(2004), Richardson(2000), 그리고 이동성(2012)의 평가

7)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p.56.

8) 이동성(2010),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3(3), p.146.

9) 정민수, 이동성(2014), 한 초등학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 갈등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교육혁신연구』 24(2), p.145.

준거들을 종합하여 연구결과들을 검증하였다.¹⁰⁾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교수와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검토를 받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여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 성실히 서술하였다. 셋째, 동료 예술강사 5명과 개인적인 주관성을 최소화하여 분석과 해석을 반복적으로 검토 후 자문화기술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 경험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무용수업 지도는 단독으로 진행되지 않고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술강사와 담임교사’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용 수업은 학생들과 춤으로 친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다 좋은 무용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자는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용 수업지도 시 관계가 형성되는 대상을 ‘학교교사’, ‘학생’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무용 예술 강사의 역할과 성찰’을 분류하여 이야기한다.

1. 학교교사

가. 무관심

학교실무 업무와 학생들 수업을 지도하는 담당교사는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용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은 바쁜 업무 탓에 낮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협력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예술 강사 수업은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함으로 담당교사 보다는 담임교사와 교류할 부분이 많았다. 협력수업은 담임교사의 부재 또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관하는 형태로 무용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무용 수업을 압박하고 안 오는 경우도 학기 마다 일어나는 흔한 일로 연구자는 시종이 울리기 전에 미리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여름은 아침에도 무더위가 기승한다. 행정실에서 열쇠를 받아 다목적실 문을 열은 순간 더위가 확 밀려 들어왔다. 창문도 딱딱 닫혀있던 다목적실은 짐통이 따로 없다. 선풍기를 돌리고 학생들이 오기만의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교실로 찾으러 가니 담임 선생님이 압박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다.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목적실로 와 수업을 시작하는데 더운 날씨 탓인지 학생들의 눈빛은 흐리고 산만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30분의 시간이 버거운 1교시였다.

(2014. 07.10 자기 관찰지)

담임교사의 업무와 “나”의 업무를 분리해서 나누기 전에 내 수업은 내가 챙기자는 마음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수업일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즉, 경험을 통해서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방법을 찾아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수업위기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10) 앞의 글, p.145.

나. 부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수업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예술 강사들은 매년 2월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부장교사와 인사를 나누고 담당교사와 학급일정 및 수업활동에 대해 의논 한다. 수업 할 대상과 학급수를 확인하고 수업 나갈 요일을 정하는 일정 외에 학교에서 원하는 무용 수업을 참고하여 연간계획을 세우는데 무용수업 외에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무용작품을 수업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담당교사: 무용 강사님, 우리학교는 11월에 있을 학예발표회 준비로 무용 수업을 활용하고 싶어요!

연구자: 아... 네?(미소)

담당교사: 작년에 무용 강사님은 해주셨어요! 저학년 학급이 2반 밖에 없어서 반 별로 준비해주세요.

연구자: 무용수업 중에 발표회 준비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외국 민속춤이나 우리나라 민속춤을 가르쳐 드리면 안 될까요? 학생들 지도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순서를 영상으로 찍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교사: 저희 무용수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학예발표회 준비를 잘해주셔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발레나 댄스로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회 준비는 수업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하생략)

(2017.02.27. 개인적인 기억자료)

초등학교는 학예발표회 및 체육대회를 2년에 1번 또는 매년 진행하는 곳도 많다 보니 무용 수업시간을 이용해서 공연준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무용 수업을 신청하는 학교가 간혹 있다. 무용 예술 강사의 사업 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무용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모르고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최대한 상냥하게 대화를 시도하여 합의점을 모색한다. 발표회 준비는 최대한 협조해드리는 대신 1학기는 정상적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에 발표회 준비(4차시)를 해주면 담임교사들이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았다.

다. 피드백(feedback)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외국 민속춤 ‘타타로치카’를 1학년 수업에 응용하여 진행하였는데 시범을 보이는 중 담임교사의 입가에 미소를 보았다. 펭귄의 움직임 묘사하는 춤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표정이 한눈에 보였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업을 바라보고 있다.

담임교사: 선생님! 오늘 무용수업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수업으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은 차시 외국 민속춤으로 해주세요(미소).

연구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깐 너무 뿌듯해요. 남은 차시가 1차시 정도 있으니깐 그렇게 할게요.

담임교사: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학생들은 춤추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8.11.30. 담임교사와 면담)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는 외국 민속춤, 우리나라 민속춤이 없음으로 학습대상에 맞게 난이도를 조

정해서 수업을 운영할 수가 있다. 담임교사는 무용 수업이면 춤을 추는 시간으로 활동지를 작성한다든지 주제 탐구하는 시간은 무용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맞이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용 수업은 ‘예술만나기’로 한 주제를 2차시로 나눠서 진행함으로 담임교사가 볼 때는 무용수업 답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다.

부장교사: 선생님! 만들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깐 춤 출 수 있는 수업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에너지가 넘쳐서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연구자: 아 네.. 초등학교 무용교육과정이 저학년들 수업은 한 주제를 두 차시로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만들기를 할 때도 있고 활동지를 작성 할 때도 있어요. 그 과정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 앞 차시에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2차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요.

부장교사: 아 그랬구나. 학년 회의를 했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춤추는 수업을 하길 원해서요. 그럼 준비된 수업으로 하세요. 전달하겠습니다.

(2018.09.14. 부장교사와 면담)

연간계획을 미리 준비해도 학기 중에 수업이 변동되는 경우가 바로 담임교사들의 피드백에 따른 수업 설계이다. 오랜 교육경험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나”보다는 높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편인데 이번 같이 무슨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제시할 때는 협력수업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고 무용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

라. 협력수업

지역에 예술 강사들이 다 모이는 학술심포지엄에서 소통의 장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예술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들의 외침 중 협력수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사용이나 다른 업무를 보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마다 분위기가 달라 어디학교는 들어와서 도와주시는데.. 교육청 지침으로 협력수업을 꼭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신규 강사여서 협력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이하생략)”

(2018.11.10. 예술 강사 학술심포지엄 중)

“나”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고 있으며, 협력수업을 내가 먼저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요구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종일 수업하는데 조금 쉬게 해드리자는 배려의 마음이었고 이야기하자니 “나”의 전문성을 의심 할까봐 또는 불편해 질 수 있는 상황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 지도문제로 인해 담임교사와 의논이 필요한 경우가 생김으로 그 참에 협력수업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최대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단어 선택을 잘하여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직까지는 도움을 먼저 요청해서 담임교사는 아직까지 보지 못 했다. 내가 먼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기억도 있다. 생각해 보면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무용 수업에 들어가면 예술 강사가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해드린 거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생을 위한 수업 의논이 계기가 되어 담임교사와 예술 강사의 대화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오해 없는 소통으로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 다음차시 무용 수업에서는 협력 수업을 할 수 있어 안정된 마음으로 연구자는 무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교사와 예술 강사 간의 협력수업은 통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낮출 수 있다. 기존의 예술교과 교육과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예술 강사 프로그램은 다양한 도전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사와 예술 강사 간 협력은 이러한 일들을 훨씬 관리가 수월하도록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 시키며, 학교 교육과정을 일관성을 제고시켜준다.¹¹⁾ 따라서 예술 강사의 부족한 학교교육의 이해를 채워줄 수 있는 협력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무용 수업을 제공하는데 상호작용하여 이전 보다 좋은 수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 무용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과 ‘무관심한 학생’

‘무용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무관심 한 학생들’로 나뉘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든 하고 있을 것이다. 연구자인 “나”도 그런 마음에서 지도경험을 성찰하여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용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내가 먼저 접근하지 않아도 스스로없이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쉬는 시간에 먼저 와서 “나”와 대화를 한다든지 호감을 표하는 편지,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주기도 한다. 모두가 무용 수업을 좋아한다면 수업을 잘하고 싶은 고민은 들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무용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는가? ‘무용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해서 모둠활동으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모둠원이 하고자하는 데로 따라간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지 않으며 친구들이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무용 수업에 동참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다가가면 환한 미소로 화답한다. 환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무용 수업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찾아가서 무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참여 잘하는 학생’들과 짝꿍을 만들어준다. 어떻게든 무용 수업에 참여시켜 모둠발표까지 할 수 있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이 발표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지도한다.

파트너 움직임을 따라하는 ‘거울이 되어봅시다’를 하는 중 평소 수업 참여에 소극적이던 학생이 파트너의 움직임에 집중해서 따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모둠활동 할 때는 움직임을 전혀 하지 않아 무용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와 둘이 움직임을 만드는 과정은 즐거워 보였다. 이렇듯 무엇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능률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용 수업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할 것 같다.

(2015.5.18. 자기 관찰지)

11) 임재광(2013), 초등교사와 예술 강사 간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6, p.145.

연구자는 긍정적인 태도로 무용수업 시 학생들의 수행(performance)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와 지적보다는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미소 띠는 표정으로 아이컨택(eye contact)을 함으로 학생이 관심을 받음으로 안정감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하길 바란다. 연구자의 이러한 노력으로 무용 수업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쉬는 시간 및 모둠활동 지도 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신뢰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 편지, 영상기록, 수업일지를 검토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여부와 소통을 하고자하는 “나”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무용쌤♡ 저 기억하세요? 쌤이 무용 수업이 재미없냐며 슬픈 눈으로 바라봤는데 ㅎㅎ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발표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쌤 수업은 재미있어서 몰래 몰래 웃고 있어요 헤헤!! 친구들이 제가 조용하고 말이 없으니깐 말을 걸지 않아요. 무용쌤만 저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놀라요 ㅎㅎ저도 같이하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몸이 안 움직여요 ㅎㅎ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깐 오해하지마세요!!! 그동안 재미있는 무용수업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무용쌤

(2012.12.14. 5학년 여학생의 편지 발췌)

무용 예술 강사 2년차 마지막 수업에 받은 편지를 보면서 기쁨보다는 반성하는 시간을 처음 가졌기에 더욱 기억이 선명하다. 무용 수업을 잘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 움직임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학생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을 행동들을 과감하게 했던 것 같다. 지도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무용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나의 행동은 개그우먼이 따로 없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줬던 학생이 있다는 게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고민이 지금의 성찰의 기회로 학교교사와 협의와 학생과의 소통에 있어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위 서술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해석한다.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의 무관심, 소극적인 협력수업은 “나”를 개그우먼 또는 독재자로 변신시킨다. 무용은 신체활동이 많은 움직임 수업이다 보니 교실 책상테두리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학생들은 수업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칫하면 수업도 시작하기 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용수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안전주의와 주의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수업인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수업이 아니라며 마냥 신나있기 때문에 “나”는 독재자가 되었다가 또는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서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개그우먼이 된다. 독재자 보다는 개그우먼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용 수업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 통솔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악역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

연구자는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드는 생각이 담임교사와 협력수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임교사와 담당교사가 무용수업 진행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의 다른 면을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나” 보다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교사들은 학생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용 예술 강사의 무용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짐으로 교사와 예술강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 발행일로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에 관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협력수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매뉴얼이 발간된 소식은 더 없이 기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수업의 중요성이 두각을 나타내어 방법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로 학교교사와 예술 강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수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나아가 세미나 또는 연수를 통해 ‘함께 만드는 수업, 협력수업’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무용 예술 강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무용 수업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무용 예술 강사의 역할과 성찰

무용 예술 강사는 학생을 지도할 때 어떻게 역할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학습의 분위기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학습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등 무용교육 활동에 질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학생들이 무용 수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노력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요구되며, 신체 움직임에 의한 생생한 교육으로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다루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¹²⁾ 따라서 무용 수업은 지적인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인 표현활동으로 신체움직임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자기실현과 내적 감정을 신체를 도구로 표현하는 신체 움직임의 표현활동을 수행한다.

새 학기 무용수업 준비과정으로 먼저 연간수업계획서를 작성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안(초등학교 무용분야 교수학습자료)에 제시 된 내용으로 수업계획을 세운다. 초등 1·2학년은 예술만나기, 3·4·5·6학년은 춤 이야기, 즐거운 춤, 우리 민속춤, 외국 민속춤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기본, 응용, 심화 3단계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해서 수업계획을 세운다.

▶3학년 9차시

차 시	주 제	준 비 물
1	무용이 무엇일까요?	PC사용
2	이름 말하며 춤추기	
3	내 몸이 움직여요	
4	움직이고 멈추고	
5	나비가 되어	활동지, 필기도구
6	거울 되기	
7	우리 민속춤-도라지 타령	바 구 니
8	러시아 민속춤- 펭귄춤	
9	네덜란드 민속춤- 버디댄스	

(2016. 2. 27. 초등학교 무용수업 연간계획서 일부 발췌)

12) 김화숙,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5), 『무용교육론』(서울: 한화문화), p.37.

수업운영은 학교에서 정해진 학년으로 한 차시에 한 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무용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 상황에 따라 교실, 다목적실, 강당 등 다양하게 공간을 배정 받는다. 이처럼 학교에서 정해주는 학습대상과 장소를 협조 받아 무용 수업을 운영하며,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신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움직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무용 수업을 지향한다. 무용교육은 언어 중심의 교육방법과 달리 신체움직임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흥미와 자신감 등의 동기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¹³⁾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과정에 대한 교수설계를 학교교사와 사전협의의 충분한 하여 학습자에 대한 정보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체계적인 수업운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수업계획을 학습대상의 이해에 맞게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방법은 사전에 교수설계를 하는 것이다. 교수 설계란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하였는가? 학습목표 성취를 위해 제공되어야하는 학습활동, 학습전략, 학습자료는 무엇인가? 학습자들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와 같은 일련의 요소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에 있어 교수설계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고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며, 수업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활동¹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연구자는 수업설계를 사전에 해봄으로 무용 수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주제에 따른 흥미유발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연구자 스스로가 만족되는 즐거운 무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학교로 파견되는 예술 강사는 교육현장에서 수업 운영 시 요구되는 전문성 외에 외적으로 보여 지는 무용 강사의 이미지와 교사로서의 언행 또한 중요하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무용을 전공하셔서 예쁘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예쁜 무용선생님 왔다고 좋아하겠어요!”이다. 무용이 신체를 활용한 움직임 표현이다 보니 무용전공자에 대한 이미지가 외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학기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선생님 예쁘세요?”, “키가 크세요?”, “무용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새로운 외부선생님에게 학생들은 관심이 많았다. 나도 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른 때보다 꽃단장을 열심히 하고 출근을 한다. 칭찬을 받는 일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칭찬을 해주기 위해 친근하게 다가가 “우와 오늘 멋있네!, “예쁜 ○○야”라는 안부 인사를 나누며 수업을 시작한다. 학생들은 예쁜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 수업 갈 때는 최대한 단정하면서도 예쁘게 웃도 화사하게 입는다. 나는 “예쁜 무용선생님 이니깐”.

(2017.4.24. 자기 관찰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는 호감을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교육활동에 맞는 언행을 기반으로 무용 예술 강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예술 강사의 특성상 예술가 활동을 하면서 학교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가의 개성은 잠시 내려놓고 학교수업에 맞는 품행을 점검한 후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다.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예술 강사 교급은 초등과 중등으로 나뉜다. “나”는 초등무용 예술강사 의무연

13)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적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p.145.

14) 연은경(2013). 201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분야 상반기 연수 초등 코스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55.

수를 2년간 받아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부터 예술 강사 학교배정을 교급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중등무용 예술 강사 연수를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학교 예술 강사 수업을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중등 무용수업 교안을 지인에게 빌리고 자체적으로 수업준비를 하는 과정을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나”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연수를 통해 교육받지 않은 내용을 교안에 의지하고 아르떼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영상 순서를 외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은 심적 부담감이 컸으며,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 할 때면 내가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현재 예술 강사 의무연수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신규 예술 강사들은 기존 강사에게 수업자문과 교안을 제본하여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

신규 예술 강사: 수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안을 구했는데 봐도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해가 안되요. 교안에 있는 순서로 연간계획을 세웠는데 이대로 진행 하면 되는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아 지금 당장 수업내용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교안 갖고 시간 될 때 학교에서 만나서 해요^^ 시간 언제 되세요?

(2018.2.22. 문자내용 발췌)

신규 예술강사들은 전문적인 수업운영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 투입된다. 연수를 받지 않고 중학교 수업을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감소되고 불안감이 찾아 온다. 그동안 무용 수업을 해온 경력이 있어서 주제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지만 연수를 받고 진행한 초등학교 수업과는 체감이 다르다. 따라서 현 신규 예술강사의 학교 적응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예술강사로서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고 앞으로의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의무연수를 다시 진행하여 예술강사의 역량을 넓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안정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III. 결론

연구자인 “나”는 8년 동안의 예술강사로 활동한 지도경험과 관련된 수업일지, 수업평가지, 학생들의 반응 기억 및 개인적인 기억자료, 그리고 자기성찰 자료를 토대로 무용 예술강사의 지도 경험을 자문화 기술지를 통해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무용 예술강사가 학교수업을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상황들을 점검하고 학교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수업을 추구하기 위해 나타난 지도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무용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문제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용 수업을 지도하며 분류된 관계의 대상을 ‘학교교사’, ‘학생’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무용 예술강사의 역할과 성찰’로 분류하였다.

첫째, 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인 무용 예술강사의 수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무리한 수업요구와 더불어 예술강사의 수업계획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교사 중심으로 의견을 내세워 무용수업

운영을 조정하였다. 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업 전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소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력 수업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학교 측의 예술강사 무용 수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 예술강사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수업에 참가하며, 협력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등의 행동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학교 측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다.

둘째, ‘무용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과 ‘무용 수업에 무관심 한 학생들’로 나누어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무용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용 예술강사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용에 무관심한 학생들은 당연한 결과로 수업을 지도할 시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여러 번의 설득과 연구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으며 소통의 방식으로 “나”의 긍정적인 태도와 친화력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 효과가 있을 기대했다. 이에 동기유발을 위한 방법으로 친한 친구와 함께 활동하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업시간 이외에도 지속적인 대화시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믹한 행동하기,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정한 미적 외형 형성 등 다년간의 지도경험을 통해 얻어진 방법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무용 수업에 대한 관심을 형성할 수 있었다. 예술강사는 학생들이 무용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본인의 역량을 통해 학생과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무용 예술강사의 역할과 성찰에 있어서는 학교교사와 협의 하에 연간계획을 세우고 교수자 및 교수환경에 따른 수업설계를 통해 완성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강사에 대한 학생 및 교사가 갖는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신체 움직임 표현을 중점으로 한 전문성을 갖춘 무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나타났다. 그러나 폐지된 예술강사 의무연수로 인하여 새로운 교급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예술강사 본인이 스스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교육관련 연수 및 예술강사 간 수업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예술강사로의 성찰을 도모해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신규 예술강사들의 경우 의무연수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의무연수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술강사의 역량을 넓히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이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안정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나의 지도경험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무용 예술강사 수업 시 학교교사와의 관계 및 학생과의 관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담임교사 및 담임교사와의 심층적인 상담과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위한 예술강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제시한다. 또한 “나” 이전에 무용 예술강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의심하며 꾸준한 자기계발을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 수업에 임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무용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화숙, 신은경, 신정희, 임혜자, 오레지나, 한혜리(2015).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
-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2010). 『무용교육의 힘』. 서울: 댄스뷰.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이동성(2010).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3(3): 141-168.
- 임재광(2013). 초등교사와 예술강사 간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6: 293-322.
- 유미희(2016).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무용예술학연구』, 60(3): 109-122.
- 정민수, 이동성(2014). 한 초등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 갈등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교육혁신연구』, 24(2): 141-162.
-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45(6): 133-153.
- 홍애령(2012). 무용교육자 전문성의 핵심 차원으로서 심성적 자질의 재조명과 함양 방안. 『한국스포츠헌교육학회』, 19(1): 23-42.
- 홍한나(2012). 무용 예술강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연은경(2013). 201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무용분야 상반기 연수 초등 코스 자료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5-76.

논문투고일 2019. 02. 15
심사일 2019. 02. 20
심사완료일 2019. 03. 16

A Reflection of Dance Art Instructor' Teaching Experience through Autoethnography*

Jang, YooSun

Ph.D. Progra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flection of dance art instructors' teaching experience through autoethnography as a good alternative when art instructors face difficult situations.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materials that I have accumulated for the 8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s an art instructor including class logs, class evaluations, memory responses of students, personal memory data and self-reflection data. In this research, I reflect on my own classes through autoethnography based on my teaching experience on the ground. When teaching a dance class, the subjects of my relationships are divided into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and "the role and reflection of dance art instructors" are classified lastly.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교육), Teaching experience in dance(무용지도경험), Art instructors(예술강사), Culture and art education(문화예술교육), Autoethnography(자문화기술지)